

음성 화학공장서 화재 발생

자동차 방청액 생산공장 500여m² 소실 ... 인명피해 없어

음성의 한 자동차 방청액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월23일 오후 4시10분 경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자동차 방청액(부식방지제)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와 창고 등 500여m²를 태우고 1시간20분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방청액 공장에는 직원 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12대와 인력 40여명을 투입했으나 공장 주변에 화학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은 불을 정리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24>